

시간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업시간



치근교육의 시야를 넓힌 아동문학가

이오덕



좋은 말을 전달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말을 우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좋은 글이란 자신이 갖고 있는 속내가 고스란히 담긴 말을 그대로 옮기는 거지요. 차라리 책을 읽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군더더기 없이 솔직하게 쓰는 것이 가장 좋은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산다는 것이 사람과 자연과 부딪치고 그 속에서 땀 흘리고 생각하고 뭔가 깨닫고 하는 것일진대, 모든 것의 뿌리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뿌리를 솔직하게 드러내는 글이 제 맛을 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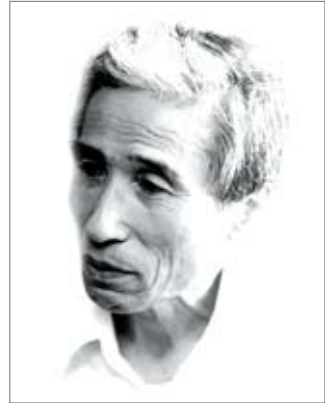
좋은 글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물음에 대한 이오덕의 답에서



- 1925 경상북도 청송군 현서면에서 태어남.
- 1944 청송군 부동초등학교 부임
- 1952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중학교 부임
- 1955 《소년세계》에 동시 〈진달래〉 발표로 등단
- 1957 교감 발령을 받았으나 사표를 내고 경상북도 상주군 공검초등학교 부임
- 1971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동화 〈핑〉 당선, 한국아동문학가협회 창립에 참여
- 1977 교육에세이 《이 아이들을 어찌할 것인가》 출간
- 1979 어린이 시 모음집 《우리도 크면 농부가 되겠지》 출간
- 1983 한국글쓰기교육연구회 결성
- 1986 경상북도 성주군 대서초등학교에서 교장 퇴임, 민주교육실천협의회 공동대표 맡음.
- 1989 《우리글 바로 쓰기》, 《이오덕 교육일기》 출간
- 1991 한국글쓰기교육연구회 회장 맡음.
- 1998 우리말살리는겨레모임 결성, 공동대표 맡음.
- 1999 충청북도 충주로 이사
- 2003 별세



1944년 경상북도 청송군에 있는 부동초등학교에 스무 살의 신입 교사가 왔다. 교단에 갓 발을 들여놓은 청년 이오덕이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천직으로 생각하였던 그는 의욕이 충만하였다. 그런데 얼마 안 가 좌절하였다. 시대 상황 때문이었다.



이오덕

때는 일제강점기 말이었다. 강압적인 조선 지배가 절정으로 치달던 때였다. 일본은 조선 학생들에게 천황에 대한 충성을 강요하는 황국신민화 교육을 실시했다. 학교에선 우리말도 가르칠 수 없었다. 일본어를 국어로 가르쳤으니까. 또 일본은 미국과 태평양전쟁을 벌이고 있어 전쟁 물자를 무지막지하게 수

탈했다. 아이도 예외는 아니었다. 학교는 아이들에게도 전쟁에 필요한 비행기를 만드는 헌납금을 거뒀다. 연료 확보를 위해 수업 시간에 산에 올라가 관솔(송진이 많은 소나무 가지나 옹이)을 따게 했다.

대부분의 조선 교사는 시대 상황이 이러니 어쩔 수가 없다고 체념하였다. 체념은 자기합리화로 이어졌다. 아예 일제에 영합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오덕은 달랐다. 자기가 꿈꾸던 교육을 실천할 수 없는 현실에 고통을 느꼈다.

승진보다 아이들이 중요하다

그는 1925년 경상북도 청송에서 태어났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독학으로 농업학교에 들어갔다. 공부를 잘해 경상북도 영덕군청에 특채가 되었지만, 교사로 평생을 보내기로 하고 다시 교사 채용 시험 공부를 해서 교사가 되었다.

애송이 교사인지라 체계적인 교육 이론은 갖추지 못했지만 첫 부임지에서 ‘이건 교육이 아니다.’고 생각했다.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다는 사실에 그는 아이들에게 늘 미안했다. 이것은 평생 그의 정신적인 부채가 되었다. 1945년 나라가 해방되었을 때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다고 맹세하였다.

해방이 되었지만 교육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이름조차도 일제가 만든 ‘국민학교’였다. 지금의 초등학교로 이름이 바뀐 것은 1996년이 되어서였다. 교사들은 일제강점기 때부터 내려온 체벌로 교실 분위기를 다잡았다. 학생 저마다의 소질과 형편을 배려하지 않고 상부의 지침에 맞춰 획일적인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최우선적으로 민주

주의 가치가 뿌리를 내려야 하는 분야인데, 신생 대한민국의 교육은 황폐하였다.

교육 민주화를 열망했던 이오덕은 자기가 담임을 맡은 아이들만이라도 사람답게 가르쳐 보려고 노력하였다. ‘어린이들의 삶을 깨끗하고 참되게 가꾸는 것이 교사가 목숨을 걸고 해야 할 일이다.’ 이 말은 그가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교사로서의 신념이다.

어릴 적 교회에 다닐 때부터 책 읽기를 좋아했던 그는 교사 생활을 하면서 아동문학의 가치에 눈떴다. 좋은 아동문학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홀로 문학 수업을 시작했다. 부산에서 교사 생활을 하던 1950년대에 한국아동문학회에도 가입하였다.

아동문학에 대한 관심은 글쓰기의 가치에도 눈을 뜨게 해 주었다. 글을 쓰는 것이 어린이의 정신적인 성장에 큰 도움이 된다는 걸 깨달은 것이다. 이 깨우침은 훗날 ‘삶을 가꾸는 글쓰기 교육’ 이론으로 발전하였다.

그는 몇몇 초등학교를 거쳐 경상남도 함안의 군북중학교에서 국어 교사로 일할 때 학생들의 글을 모아 문집을 냈다. 이때부터 아이들의 꾸밈없는 글을 모아 펴내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하였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었다. 상급자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도 아니었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에겐 교사로 일하며 안정된 생활을 누리겠다, 빨리 교감, 교장으로 승진하겠다는 생각도 없었다. 군북중학교에 재직하던 1957년 교감 발령을 받았다. 그는 교사로서 아이들을 직접 가르칠 때 보람을 느꼈다. 교감이 되면 아이들을 직접 가르칠 수 없었다. 사표를 내고 학교를 떠났다. 중학교를 그만둔 후 경상북도 상주에서 초등학교 교편을 다시 잡았다.

초등학생을 가르치던 1964년 다시 교감 발령을 받았다. 3년 후 다시 교감 사직서를 냈다. 몸담았던 학교의 교장이 저지른 부정을 눈감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문제가 커지는 걸 막으려고 교육 당국은 그에게 도시로 발령을 내주었다. 도시 근무는 대다수 교사가 바라는 것이다.

도시 학교일수록 반교육적인 행태가 심했다. 도시 학교로 전근 간 그는 얼마 안 가 자원하여 경상북도 안동의 시골 학교로 근무지를 옮겼다. 교육 환경이 열악한 시골 학교에서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이 생각은 평생 변치 않아 그는 대부분의 교사 생활을 시골에서 하였다.

1966년 첫 동시집 《별들의 합창》을 내고, 1971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동화 〈뽕〉이 당선되면서 촉망받는 아동 문학가가 되었다. 그런데 얼마 안 가 그는 주류 아동 문학가들이 기피하는 인물이 되었다. 대한민국 아동문학 풍토를 비판하는 일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오덕이 보기에 상당수 아동 문학가들은 아이들을 위한 글이 아니라 작가 자신을 위한 아동문학을 하고 있었다. 물질주의, 서구 중심적인 소재와 주제 등 현실과 동떨어진 작품도 많았다. 심지어 부끄러움도 없이 모작과 표절을 하는 작가도 있었다. 이오덕은 아동문학 평론을 통해 이런 풍조를 비판했다. 1971년엔 한국아동문학회와 결별하고 한국아동문학가협회에 참여했다.

현실과 타협하지 않은 탓에 그는 아동문학 세계에서 소수자가 되었다. 주류 아동 문학가들은 그를 폄하했다. 그에게 반감을 가진 어떤 아동 문학가는 그의 동시에 나오는 몇 구절을 트집 잡아 좌경용공으로 몰아세우기도 했다.

그는 자기 작품을 열심히 쓰는 한편, 좋은 작품을 발굴하고 알리는 일에도 적극 나섰다. 권정생의 동화 〈강아지 똥〉을 읽고 감동을 받아 안동에서 교회 종지기로 일하는 작가를 찾아가기도 했다. 이오덕은 살아 있는 동안 권정생과 아름다운 교류를 하며 그의 작품을 세상에 알리는 데 헌신하였다.

글짓기가 아니라 글쓰기다

오랜 현장 경험을 토대로 삶을 가꾸는 글쓰기 교육 운동도 벌였다. 기존의 교육 현장에서 관행처럼 행하는 잘못된 글짓기 교육의 문제점을 고치고, 또 좋은 글과 좋지 않은 글을 가려내는 방법을 알려 주는 운동이었다. 그는 삶을 가꾸는 글쓰기 교육을 실천하는 교사 모임도 이끌었다.

오랫동안 교육 현장에서 사용한 ‘글짓기’라는 말을 ‘글쓰기’로 바꿀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글은 장식하고 꾸미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고 꾸밈이 없어야 한다. 글을 짓는다는 것은 그 원칙과 어긋나는 표현인 게다. 그래서 글짓기 대신 글쓰기라고 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이 제안은 호응을 얻어 지금은 글짓기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드물다.

그는 글쓰기 교육뿐만 아니라 교육 사상에도 새 씨앗을 뿌렸다. 그가 1986년까지 43년 동안 몸담았던 교육계는 큰 변화가 없었다. 민주주의가 정착이 안 된 시대 상황 때문이기도 하지만 참교육의 목소리보다 권위주의, 획일성, 보신주의, 출세주의가 횡행하였다.

그는 현실 교육의 이런저런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비판의 목소리, 대안의 목소리를 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교육 이론은 심오한 교육 사상으로 발전하였다. 그 결과 1970년대에 《이 아이들을 어찌할 것인가》, 《삶과 믿음의 교실》 같은 교육 에세이를 세상에 내놓을 수 있었다.

이 책은 한국 교육계에 충격을 주었다. 특히 비민주적인 교육 현실에 갑갑해하던 교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어떤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고 교육 민주화를 주장한 이오덕의 태도는 그에게 시련도 안겨 주었다. 러시아 시인의 시집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정보기관의 수색을 받아 많은 책을 압수 당하기도 하였다. 그가 교육사상가로서 널리 알려진 후 교육당국은 젊은 시절 그가 시골 학교에 근무하며 지었던 교가의 가사까지 바꿔 버렸다.

글쓰기 운동, 교육 민주화 이 두 가지 일만 해도 한 사람이 헤쳐 나가기엔 벅찬 일이었다. 그런데 그는 또 하나 가치 있는 일에 뛰어들었다. 우리말과 글 바로 쓰기 운동이었다. 그는 오래 전부터 우리말을 오염시키는 일본 말법, 한자어, 꼭 쓰지 않아도 되는 외래어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말과 글이 한 나라의 주체성과 문화의 근간이기에 그는 연구하고 자료를 수집해 1989년 《우리글 바로 쓰기》를 펴냈다. 자신에게 엄격했던 이오덕은 원고 작업을 하면서 과거 자기가 쓴 글 중에서 틀린 것도 기꺼이 인정하고 고치는 작업을 하였다.

3권으로 완간이 된 이 책 역시 한국 사회에 큰 파급 효과를 낳았다. 그의 영향으로 수십 년간 사용한 ‘국어순화운동’이란 말도 사라졌다. 대신 ‘우리말과 글 바로 쓰기 운동’이란 표현을 사용하게 되었다.

봉화와 안동의 시골 학교에서 교장을 지낸 이오덕은 1986년 퇴임했다. 정년을 4년 앞둔 이른 퇴임은 경찰과 교육청의 감시 때문이었다. 당국은 그가 외지에 강연을 하러 가는 것까지 통제했다. 사사건건 간섭하는 바람에 그가 몸담은 학교의 교사들도 고생하였다.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고생하는 걸 견디기 힘들었던 그는 명예 퇴임을 신청했다. 문교부는 명예 퇴임을 받아들이지 않고 일반 퇴임 조치를 하였다. 그래서 교장에서 퇴임하면 관례적으로 받는 훈장도 받지 못했다.

퇴임 후에도 그는 자기 신념을 실천하는 걸 멈추지 않았다. 민족문학작가회의 아동분과 위원 등 자기에게 주어진 소임에 항상 충실하였다. 또 하루도 빠짐없이 글을 썼다. 그가 남긴 저작은 약 80권이 나 된다.

1990년대를 거치며 그는 이 땅의 많은 교사들에게 꼭 닮고 싶은 귀감이 되었다. 또 신념을 가지고 현실의 문제에 도전하는 지식인의 자세를 보여 주는 사례가 되었다.

몸이 쇠약해진 1999년 그는 아들이 사는 충주 무너미마을에서 말년을 보냈다. 비록 과거처럼



럼 왕성한 활동을 하진 못했으나 2003년 임종 직전까지 글쓰기 활동을 멈추지 않았다.

그의 영향은 너무나 커서 지금도 그의 존재는 참교육, 아동문학, 우리말과 글 바로 쓰기 운동을 떠받치는 뿌리로 존재하고 있다. 어린이도서연구회, 한국글쓰기교육연구회, 한국어린이문학협의회, 우리말살리는겨레모임 등 그의 정신을 이어받은 많은 단체가 지금도 더 나은 교육,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교육 분야에만 몸담았지만 삶의 폭과 깊이가 넓고 깊었던 사람 이오덕. 그는 교사뿐만 아니라 많은 후세 사람들에게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소중한 단서를 남겨 주었다.

어떤 이가 그가 추진하는 우리말 살리기 운동에 대해 ‘그거 쪽박으로 바닷물을 퍼내는 것 아니냐?’고 그 무모함을 지적했을 때 이오덕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어찌합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이 이뤄질 수 있는가 없는가를 따져서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고, 이래서는 안 되지요. 하지 않을 수 없어서 하는 것입니다.” - 《이오덕 삶과 교육 사상》에서 인용

이오덕은 늘 그렇게 살았다. ‘여기 소중한 일이 있다. 가치 있는 일이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힘들다고 한다. 그런데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한다. 누가 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겠다.’고 자기 몸을 던진 사람! 이오덕은 그런 사람이었다. 덕분에 세상은 좀 더 좋아졌다.

김인기

* 이오덕의 책은 지금도 많은 사람이 찾고 있다. 그의 사상을 이해할 수 있는 책은 많으나 그의 인생 이야기를 다룬 책은 많지 않다. 이 글에 나오는 여러 일화는 이주영이 쓴 《이오덕 삶과 교육 사상》(나라말 펴냄)을 참고하였다.



생각거리

이오덕이 ‘우리말 바로 쓰기’를 중요하게 생각한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흔히 말은 생각을 담은 그릇이라고 한다. 그래서 잘못된 말이나 우리의 삶에 꼭 맞지 않는 말들은 우리의 사고를 그릇되게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의 삶과 맞지 않는 한자어와 서양의 외국어를 쓰면 유식해 보인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삶의 느낌을 바르고 자유롭게 글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오덕은 우리말이 수준 낮은 언어가 되는 것은 결국 우리 겨레의 넋이 말에서 떠나버리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우리말 바로 쓰기 운동에 힘을 썼다.